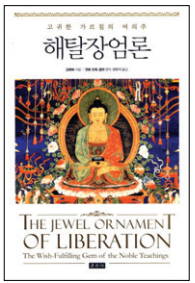


현교 밀교 아우른 티베트 수행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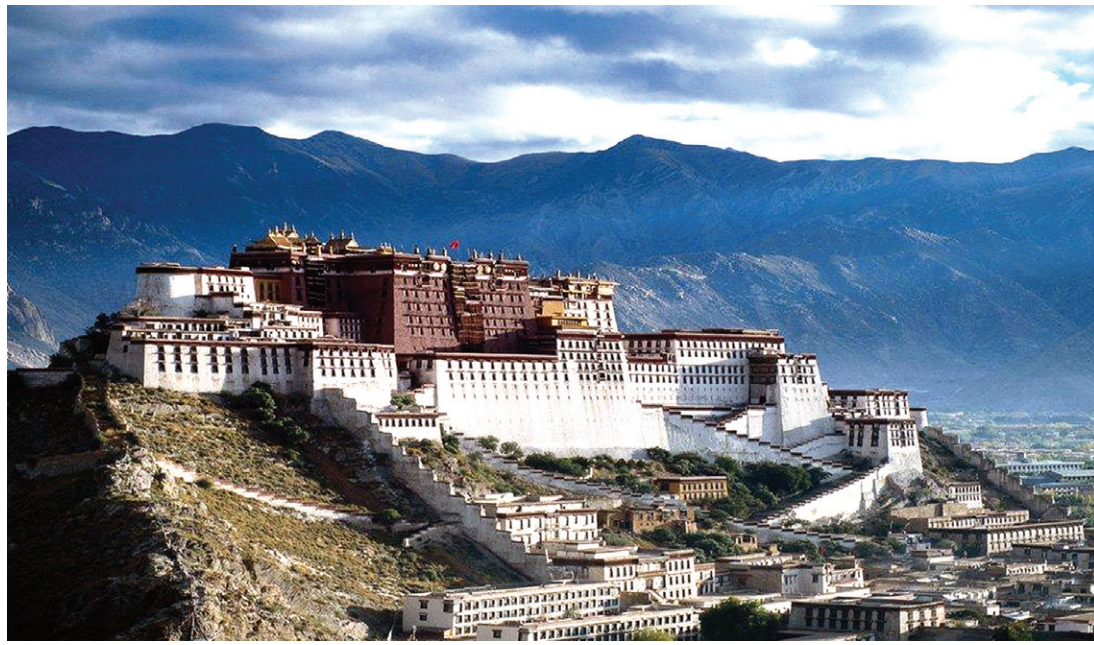


해탈장엄론
감빠썬 지음
켄뵌 끈축 켈뵌 영역
진우기 옮김
운주사 펴냄

앞으로 교재가 없어서 티베트 불교 기초 수행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티베트 불교의 수행 지침서 <해탈장엄론>이 번역되어 출간됐다. 책은 나로빠로부터 밀라레빠에게 전승된 '마하 무드라'와, 아미샤로부터 시작된 까달빠의 '보리도 차제법'을 하나의 체계로 융합한 책으로 현교와 밀교를 아우른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 수행교과서다.

책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교의 입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성불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단계를 다루고 있다. 불성에 관한 가르침에서 시작하여 스승을 찾는 일, 무상과 업을 공부하는 단계, 보리심을 수행하고 육바라밀을 닦는 단계, 보살 심지를 완성하고 붓다를 이루는 단계, 깨달은 사람인 붓다가 행하는 모든 활동까지를 다루고 있다.

책은 먼저 깨달음의 근본 원인인 '불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들이 성불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힌 다음,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인 '귀중한 인간의 삶'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고, 깨달음의 길을 인도할 '스승'의 필요성과 스승을 섬기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불도를 이룰 때까지 수행하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



티베트 불교의 중심인 라싸의 포탈라궁이 산 정상 절벽에 위엄을 갖추고 정엄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

불교 입문에서 성불하는 단계까지 이론과 다양한 수행법 자세히 소개 안겨기간에 기본교과목으로 채택

한다. 여기에는 먼저 모든 현상의 무상함과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의 고통에 대한 자각이 선행된다. 이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업보와 과보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의 원인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다. 또한 이기심에 대한 해독제로 자애와 자비의 수행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행복을 들고 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기 위한 '귀'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근본적인 기반으로 '보리심'을 언급하고, 보리심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삼학으로 집약하고 육바라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 방법들을 통해 보살의 수행5위와 보살 10지를 점진적으로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삼신을 가진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다시 마지막 회향으로 윤회가 끝나는 날까지 중생들의 복득을 위한 활동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해탈장엄론>을 저술한 감빠썬(1074~1153)은 티베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 중 한 사람으로, 밀라레빠의 상수제자다. 닥뵌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그는 전염병으로 아들과 아내를 잃고 난 후, 세속의 삶을 정리하고 밀라레빠를 만나 스승으로 모셨다. 밀라레빠의 제자 중래충빠는 '달과 같은' 제자라고 불렀고, 감빠썬은 그 가르침이 태양처럼 명료하다해서 '태양과 같은' 제자라고 불렀다. 감빠썬은 많은 문헌을 저술함으로써 펠로빠, 나로빠, 마르빠, 밀라레빠로 이어지는 가규빠의 전승을 완성했는데, 그의 저서 중에서도 <해탈장엄론>이 가장 중요한 저서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교학과 판트라 사이의 모든 오해를

풀어나가는데 앞장섰다. 까달빠 백백 안에서 경장을 공부했고, 위대한 성자 밀라레빠로부터 탄트라 수련을 받은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전 560년경에 설하셨던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완전히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티베트의 모든 불교학파들이 <해탈장엄론>연구하고 있고, 티베트의 유서 깊은 3년 안거 기간에 기본교과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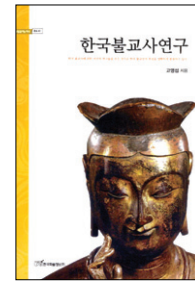
부록에서는 저자인 감빠썬의 삶과 수행, 가르침에 대한 짧은 전기와 소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이 책의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경전에 근거하여 따로 소개함으로써 본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책의 말미에는 본문에 나오는 경전명의 한글, 영어, 중국어, 범어, 티베트어 표기를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번역되지 않은 티베트 경론에 대해 5개국어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영역자의 서문을 들 수 있다. 영역자는 교학과 수행을 겸비한 고승으로, 이 책에 근거하여 다년간 수행하고 제자들에게도 강의한 경험을 토대로 이를 영역했다. 그는 서문에서 본문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훌륭한 안내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숙독할 수 있고 수행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책을 완전히 공부한다면 불교의 각 단계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두 번 읽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달라이라마가 강조했듯이 이 위대한 저서의 완전한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책은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교과서이자,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이끌어주는 안내서다.

박재현 기자 wanhillo@hyunbul.com

모든 것 녹여낸 '비빔'의 한국불교

한국불교사연구

고영섭 지음 | 한국학술정보 펴냄 | 3만2천원



이 책은 한국불교사를 연구하는 동국대 불교학과 고영섭 교수의 연구물을 모은 것이다. 한국 불교 만의 특성을 통찰하고자 한 이 책은 한국불교사 측면에서 논의된만한 개별 주제들에 대한 문제제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한국불교는 각 시대마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많은 연구 과제들이 남아 있다. 또 새로운 문헌이 발견될 여지도 많다.

한국불교사는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로부터 현재까지 한국불교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모든 역사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광범위한 연구분야에서 저자는 불교 그 자체의 사상적 변화

상과 함께 한국 고유의 사회종교로서의 역할까지 다룬다. 책에서 저자는 한국불교는 불설의 핵심인 중도 위에서 소송에 상대되는 대승을 아우르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한국불교는 소송과 대승의 대립을 넘어선 일승의 기호로 '비빔'의 불교가 됐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의 13종을 한국 만의 '곰'의 불교로 숙성시켰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이 곧 한국불교의 종합성(一乘)과 독자성(一味), 혹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고려시대 한국불서 간행과 근대 동국대의 교육현황 등 그동안 불교사 연구에서 살피지 못한 곳곳을 보는 시각이 눈길을 끈다.

시대에 흐름에 따른 불교사의 특징을 살펴 현재 불교 대중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원효탐색> <한국의 사상> 10인: 원효 <한국철학사 15인 이후: 원효 이후> <불교경전의 수사학적 표현> 등 다양한 불교학 연구 저서를 남긴 저자의 시각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것이 어떨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전식 불교입문서이자 학습서

불교공부사전

박철한 편저 | 운주사 펴냄 | 2만원



사전은 공부나 학습 등을 돕기 위한 많은 정보를 담은 책으로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공부의 대상이 아니다. 1980년대 영어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공부법이 유행했지만 사전은 공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부법이 아니었다.

<불교공부사전>. 사전의 이름이 붙은 이 책은 일반적인 사전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불교공부사전>은 불교의 기본을 간략하게 풀이한, 사전식 불교 입문서이자 학습서이다. 즉, 불교공부를 하다가 모르거나 궁금한 항목을 바로 알려주는 불교사전

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불교입문서의 내용까지 전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이란 이름이 괜히 붙은 것은 아니다. 책에는 불교 입문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표제어를 선별하고 그 속에 관련 항목을 함께 서술했다. 특히 용어가 쓰인 <대장경>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고 덧붙여서, 그 용어가 <대장경>에서 어떻게 설해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중요 경전들도 간단하게 해설하고 그 핵심 내용을 발췌하여 한 경전을 다 읽지 않고도 요점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서술방법에서는 사전보다는 다소 부드럽다. 어원이나 용례 등에 있어 무차별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입문자들이 어려움 없이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구성했다.

사전기능과 입문서 기능을 절묘하게 융합한 이 책의 저자는 광철한 씨다. 이미 <시공불교사전>과 <불교 길라잡이> 등 다양한 불교입문서를 발간한 광철한 씨의 내용이 돋보이는 저작이다. 노덕현 기자

보광 스님, 역주 <정법안장> 제2권 펴내

정법안장(正法眼藏)

보광 스님 역주 | 여래당 출판사 펴냄 | 가격 미정



일본 불교에서 가장 우수한 문헌 중으로 평가받는 <정법안장(正法眼藏)>. 일본 조동종 개조인 도원 선사(1200~1253)가 저술한 대표적인 선서로, 본래의 명칭은 <영평 정법안장(永平 正法眼藏)>이며 조동종 종전(宗典)이기도 하다. <정법안장(正法眼藏)>을 20년 동안 연구하며 후

학들을 지도해 온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성남 정토사 주지)이 역주 <정법안장> 제2권을 펴냈다.

보광 스님은 이번 제2권에서 <정법안장> 총 95권 중 제11권 유시(有時) 권에서 제17권 법화전법화(法華轉法華) 권까지를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다.

이 책에서 보광 스님은 해제를 하고 주석을 일일이 달았으며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난해한 부분은 고교 졸업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었다.

특히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법어의 근거가 이 책의 산수경(山水經)이란 권에 자세히 설명되어 눈길을 끈다. 노덕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인	생안파커스
2	깨달음	법륜	정도출판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도출판
4	사찰의 상징세계	자연	불광출판사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성남 불소 놓아주기	미안 브라운	공감의기쁨
7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공헌자
8	탄허록	탄허	휴
9	청춘출가	김제원 외	솔리
10	해탈장엄론	감빠썬	운주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요즘 불자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 대원문제원 선사 서문 중에서

-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각권 10,000원
☎ 031-534-3373

“참음이 제일 가는 도道이니 중생의 마음에 걸림이 없게 하라”

하심·인욕 수행지침서

향복기심 -참는 연습
영국스님 지음

신국판 | 부분 컬러 | 334쪽 | 12,5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진정한 참음은 '참된 자신'眞我에 머물고
성스런 참음은 중도실상中道實相에 안주하는 것

팔공산 절벽에서 목숨 건 정진 끝에 종교적 체험을 얻은 저자(조계종 수좌)는 삼매 중에 많은 진상을 돌아보며 당신의 업보를 알게 됐다. 마음속의 원망등을 해소하고 기록한 자비심을 깨달은 그는 불자들이 인욕바라밀을 닦아 무한한 행복을 누리길 발원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망파명리 중국 단견업 선생 초청 특강

기존 명리의 단점 극복과 명리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세계적 명리학자 단 견업 선생의 강의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 단견업 선생 강좌 및 상담 일정 -

- 일시 : 2012년 8월 12일(일) ~ 8월 17일(금)
- 강의시간 : 오전 10시 ~ 1시, 중식: 1시 ~ 3시, 3시 ~ 6시 [하루 6시간 6일 강의]
- 강의수준 : 중급수준 [2012년 최신자료]
- 강의장소 : 신실동 한국전통아카데미학원 [1호선 신실동역 5번출구]
- 강의비용 : 85만원 (7월20일까지 등록자에 한해 강의교재 무료제공)
- 강의방법 : 동시통역강의, 강의교재 : 한글번역제공
- 등록방법 : 사전등록제 (선착순등록마감) ☎ 352-0447-8973-63 예금주:박형규
- 강의유의사항 : 녹음금지, 동영상 촬영금지, 내부자료 외부누출금지 [위낙 중요한 내용이 불가피하게 녹음 및 동영상 촬영 금지합니다]
- 주요강의내용 : 체용, 빈주, 주공, 적신포신, 허실의 응용, 상법의 응용, 합의 응용, 총의 응용, 부귀팔자 잡아내는 법
- 상담안내 : 8월 12일 ~ 17일중 단견업 선생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사전 예약 하셔야 합니다.
- 연락처 : 031)918-7550, 011-1743-0543
- 홈페이지 참고 : www.mangpa.co.kr

학산망파명리연구원